

# 정보부대 숙영시설 건립 강력 반발

아야진 주민들, 플래카드 게첨·속초시 항의방문... 2009년 청학동 군부대 이전과 연관

고성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정보부대가 현재 부대 휴양소가 있는 아야진 해안가에 추가로 숙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현지 주민들이 조업 차질과 지역발전 걸림돌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아야진1리~6리 주민들과 아야진 어업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정보부대 아야진 이전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마을 곳곳에 '000는 아야진 어업인 생존권 보장하라', '속초시가 내버린 정보부대 아야진에 웬말이냐, 떠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아야진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정보부대 휴양소 때문에 조업 차질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마을 숙원인 해안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대기업 연수원 유치가 무산되는 등 지역발전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숙영시설까지 들어설 경우 잠수기와 자방 등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아야진 발전을 위한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야진 6개리 주민을 대표하는 아야진변영회 고태성 회장은 "지난 30년간 정보부대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표현

주민들 "30년간 고통... 기존 시설도 철거해야"  
국회의정연수원 부지 대토 문제 뒤늦게 도마에



아야진 마을 곳곳에 정보부대의 숙영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부대의 추가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고태성 회장은 또 "현재 인근 교암 및 청간마을과는 행동을 같이하기로 했으며, 우리의 의사를 밝힌 만큼 군부대와 고성군이 어

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뒤 차후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고성군 전체 변영회와 연대하고 잠정 보류한 해상시위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김창언 아야진3리 이장은 "우리 주민들의 주장은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숙영시설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설들도 모두 철수하라는 것"이라며 "지난 2004년 린나이 연수원이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그 때도 정보부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등 아야진 발전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주민 대표 5명은 지난 1일에는

아야진 숙영시설 시행자인 속초시를 방문해 채용생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채용생 시장은 "숙영시설 설치하는 지난 2009년 청학동 군부대 시설 이전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 선정은 국방부에서 한 것"이라며 위치 선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속초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청학동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군부대 시설 이전은 모두 완료했으며, 지금 문제가 되는 숙영시설은 별장 같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군부대 이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2009년 고성군이 국회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주민들 몰래 의정연수원 인근 군부대 부지와 아야진 군유지를 대토한 것이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태성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에 이런 소문을 듣고 확인해보니 이미 2009년에 군부대로 소유가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성군도 문제지만 당시 이를 승인해준 의원들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향로봉·월비산 전투지역 유해발굴

국방부 유해발굴단, 5~30일까지 4주간... 지난 1일 군청서 개토식

육군 제 22보병사단은 지난 1일 오후 2시 고성군청에서 사단장과 고성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장, 참전용사 및 보훈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해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개토식은 '땅의 문을 연다'는 뜻으로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참가하는 모든 인원의 안전과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다짐하는 행사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국방부 직할 발굴부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주도로 지역 책임부대와 유관기관 등의 협

조 아래 추진되는 범정부적 사업이다.

이날 개토식은 개식사, 국가에 대한 경례, 묵념, 추념사, 종파별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폐식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유해발굴 지역은 6·25 전쟁 당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향로봉·월비산 전투 죽선인 마산봉, 건봉령 등 7개 지역이다.

사단 장병 및 국방부 유해발굴단으로 구성된 150여 명의 발굴팀이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이 지역에서 집중 발굴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5일부터 16일까

지는 아산봉과 신성봉을 비롯해 간성 초계 광산 원암 일대에서 진행되고, 19일부터 30일까지는 건봉령 지역에서 발굴작업이 실시된다.

사단은 유해발굴에 앞서 전사(戰史) 확인 및 참전용사의 증언, 지역주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발굴지역을 집중 탐사해 돌무덤 100여 기, 봉분 18기, 전사자 화장터 1곳, 집단가매장 예상지역 11개소, 다수의 교통호 등을 발견해 유해발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발굴반 집체 교육으로 지역 전사(戰史) 교육 및 유해발굴요령 실습 등 체계적



지난 1일 오후 2시 고성군청에서 22사단장과 고성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장, 참전용사 및 보훈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이 진행됐다.

인 발굴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50구의 유해발굴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공조속에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22사단 사단 유해발굴팀장인 두호균 중령(42세, 육사 50기)은 "전쟁 당시 선배 전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이 있는 것"이라며 "유해발굴사업은 군복을 입은 후배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110여명의 병력이 4주간 투입돼 상리, 마달리, 운봉리 일대에서 유해 10구를 발견하고, 탄피와 전투화조각 등 유품 22종 390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광호 기자